



## 일본 국채, 단기금리 하락 · 장기 금리 상승 추세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추가적인 금융완화정책(2월) 이후 단기국채(2년 만기) 수익률이 하한선인 0.1%까지 하락한 반면, 장기국채(10년 만기) 수익률이 상승하여 1%를 상회하는 등 국채수익률 구조의 점진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.
  - 최근 일본에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증세 전환 정책이 표류하거나 정부재정 문제가 재부각될 경우 장기금리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  - 국채수익률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수익률 하락(가격 상승)이 두드러진 것은 2년 만기 국채이며, 동 국채는 2012년 초 0.125%에서 2월 중순 동안 사실상의 금리 하한선인 0.1%까지 하락한 이후 현재 0.11% 수준에 머물러 있음.
- 일본은행이 2월 14일 자산매입 기금을 10조 엔 증액하는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하고 1~2년 만기의 국채매입을 확대함에 따라 2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하락함.
  - 현재 5년 만기 이상의 국채수익률이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1월 하순 이후 1%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었으나, 3월 15일 일시에 1.060%로 약 3개월 반만에 상승하였으며, 특히 2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3월 15일 1.8%대로 상승함.
- 장기국채 수익률이 급상승한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유럽 재정위기 개선,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음.
  - 최근 일본 국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산되고 있지만 20년 · 30년 만기 초장기 국채수익률의 경우 일본 재정상황 등 장기적인 구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.
  - 또한, 고유가와 일본의 과도한 금융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미국, 유럽, 일본의 장기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.

(니혼게이지신문 3/20 등 종합)